



영화 '코리아의 하지원·현정화

탁구, 골프, 축구, 야구...

스포츠 휴먼영화가 온다

'코리아'는 4월에 크랭크인 해 올 추석 개봉을 목표로 한다. 골프를 소재로 한 영화 '백프로'는 전직 프로골프 선수가 뜻하지 않게 폐교 위기를 겪는 삼마을 분교 선생님이 부임한 뒤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대회에 출전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거침 없이 하이킥', '제빵왕 김탁구'의 윤시운이 주연을 맡았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17세 이하, 20세 이하 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3위의 성적을 일궈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여자축구도 스크린에 옮겨진다. 전북 삼례여중 축구부 이야기를 다룬 '삼례여중 축구부'다. 삼례여중은 17세 이하 여자축구 국가대표인 김빛나의 모교로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이뤄가는 학생과 교사들의 분투기가 쫄쫄하다.

지난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수많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서영희와 김수로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최동원과 선동열이 등장하는 야구 영화 '퍼펙트 게임'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동원은 롯데 소속이던 지난 1984년, 전무후무의 대기록인 한국 시리즈 4승의 금자탑을 세우며 당대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선동열 역시 85년 데뷔 이후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를 주름잡았고, 통산 평균자책점 역대 1위(1.20)에 올라있는 전설이다. 지난해 '인사동 스캔들'로 스크린 데뷔한 박희관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에서 극중 두 주인공인 선동열 역은 배우 양동근이 확정됐으며, 최동원 역은 조승우가 출연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대표' 김용화 감독의 차기작 역시 야구를 소재로 하고 있다. 김용화 감독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 '제7구단'을 원작으로 한 '미스터 고'를 연출한다. '미스터 고'는 중국 톱과 서커스단의 연변 소녀 미미와 야구하는 고릴라 팀이 한국 프로야구팀에 입단해 수퍼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스포츠 휴먼 드라마. 고아 미미와 고릴라 팀이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웃음과 감동의 드라마로 풀어낼 예정이며 3D 영화로 제작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희



윤시운



최동원·선동열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는 영화 소재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았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들을 소재로 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국가대표 스키점프 팀의 이야기를 그린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작품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우승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코리아'다. 1991년 현정화·이분희·유순복을 주축으로 한 코리아 대표팀은 대회 9연속 우승을 노리던 중국을 3-2로 꺾고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현정화와 이분희는 복식조로 호흡을 맞췄고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으로 감독의 순간을 함께 했다. 주인공 현정화 역에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스타트 우먼으로 열연했던 하지원이 맡았으며 현재 대한탁구협회 전무인 현정화는 하지원의 대역으로 출연한다. 또 다른 주역인 북한 선수 이분희 역은 배우나에게 돌아갔으며 유남규 역으로는 요즘 잘 나가는 조연배우 오정세가 캐스팅됐다. 현재 경기도 안양의 농심삼다수 체육관에서 현정화·유남규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인 김분식 탁구협회 과장이 매일 4~6시간씩 배우들의 기본기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



하지원, 영화 '코리아'서 탁구 선수 현정화 재현
여자월드컵 우승 다룬 '삼례여중 축구부'... 서영희·김수로 호흡
선동열vs최동원 '퍼펙트 게임', 스크린으로 부활

새 영화

위험한 상견례

광주남자 현준 부산여자 다홍
두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지만
양쪽 집안은 결사 반대하고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광주 남자 현준과 부산 여자 다홍은 현준의 군 복무 기간에 펜팔을 시작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온 사이. 제대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지만 현준의 집에서는 경상도 며느리를, 다홍의 집에서는 전라도 사위를 결사 반대한다. 결국 현준은 서울 사람으로 행세하고 다홍의 집에 인사간다. '방자전', '마더' 등에서 주연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송새벽과 '부자의 탄생' 등에서 북쪽 뒀는 연기를 보여줬던 이시영이 처음으로 주연에 도전한 작품이다. 두 사람을 튼튼히 받치고 있는 이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의 달인들이다. 다홍의 가족들로 출연하는 백은식·김수미·정성화·김정난을 비롯해 박철민·김응수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만큼 최효섭의 '세월이 가면'이 음악 다방에서 흘러나오고 당시 인기 스타 박남정이 직접 카메라로 출연하는 등 그 때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 '순풍 산부인과' 등을 연출한 김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등급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별관 내부수리중	1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2관 별관 내부수리중	2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3관 줄리아의 눈 / 지구대표 롤링스타즈	3관 월드인베이션 (12세)
4관 레드라이딩후드 / 킹스스피치	4관 줄리아의 눈 (18세)
5관 사랑이무서워 (15세) / 웨이백 (12세)	5관 월드인베이션 (12세) / 로렌틱해본 (12세)
6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6관 레드라이딩후드 (15세) / 그대들사랑합니다 (15세)
7관 베니싱 (12세)	7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8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8관 베니싱 (12세)
9관 월드인베이션 (12세)	9관 웨이백 (12세) / 킹스스피치 (12세)
10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10관 미트 페어런츠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위험한 상견례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킹스스피치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